

새로운 놀이터, 사이버 공간

- 정연실 교하 / 2003. 6. 17 -

얼마 전 인상깊은 TV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아들이 인사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보입니다. 그 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대화신청 쪽지를 받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도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배웠다는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모습 위로 '대화의 창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라는 카피가 나타나지요.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달라졌고요. 또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가치와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N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이 새로운 공간은 그들의 일터이자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인도에 갈 때 가지고 갈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 비해 뉴미디어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린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사이버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 공간이 마치 젊은 세대들의 특정공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세대간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가 생겨나고 그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정보화사회를 지향한다는 명목 아래, 초기 인터넷이 보급될 때는 기술교육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컴퓨터를 사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기만 하면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특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이버 범죄, 온라인 문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네티켓 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아이들 속에 쉽게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교육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버 공간에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컴퓨터가 있는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는 거실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장소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이버 문화를 공유한다면 인터넷의 원래 목적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정보를 여러 사람과 나누는 곳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유해한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업주의에 물든 사이버 공간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깨끗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인터넷

을 이용하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 보십시오. 스팸메일이 가득한 편지함에서 부모님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유익한 게임을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두컴컴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 즐겁더라도 현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시간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이 가진 특징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실제의 삶과는 다른 상황과 맥락(context)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거나 익명성을 무기로 장난을 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집 앞에 새 놀이터가 생겼다면 부모는 아이를 보내기 전에 놀이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안전한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어떤 아이들이 와서 노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본 뒤에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논 경험이 없다면 부모가 함께 가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놀이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친구들과 함께 노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겠지요.

사이버 공간은 새롭고 신기한 놀이터입니다. 이젠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그 문화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마 신이 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아이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며, 가족이 함께 잘 이용한다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교육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대화의 창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